

KIA '잠실벌 대혈투' 스윙패는 막았다

LG戰 3대0→3대2→5대2→5대7→10대7 역전승 최형우 스리런·이우성 역전타 등 장단 16안타 폭발



에서 탈출했다.

KIA는 28일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LG와의 원정 경기에서 28안타를 주고 받는 난타전 끝에 10-7로 승리했다.

7-7로 팽팽하게 맞선 7회 이우성이 1타점 결승타를 터뜨리며 쫓고 쫓기는 추격전에 종지부를 찍었다.

양팀 선발투수들이 나란히 부진한 가운데 이날 승부는 불펜 싸움에서 결정이났다.

이준영과 장현식, 최지민, 전상현, 광도규, 정해영에 이르는 KIA 불펜진은 LG 타선을 단 2안타, 무실점으로 완벽 봉쇄하며 팀 승리에 밀거름이 됐다.

KIA 선발투수 크로우는 41안타 동안 10피안타 1볼넷 6삼진 7실점으로 개막 이후 최다 실점을 기록했다.

타선에서는 장단 16안타가 터졌다. 김선빈이 5타수 3안타의 맹타를 휘둘렀고, 최형우가 시즌 4호 홈런을 터뜨리는 등 4타점을 올렸다. 김호령과 이우성, 한준수, 박찬호도 1타점씩 추가

해 팀 승리에 힘을 보탤다. 김도영은 5타수 2안타 1득점을 기록하며 17경기 연속 안타 기록을 이어갔다. 개막 이후 첫 1군 엔트리에 포함된 나성범은 7회 대타로 나서 불넷으로 출루해 역전의 발판을 만들었다.

KIA는 1회 최형우의 선제 스리런으로 선취점을 뽑았다.

곧바로 LG의 추격에 1점을 허용했다.

3회 1점을 더 내준 KIA는 4회 1사 이후 소크라테스의 몸에 맞는 볼과 최원준의 안타로 1.3루 득점 기회를 잡았다. 한준수와 박찬호가 연속 1타점 적시타를 날려 2점을 추가, 5-2로 달아났다.

그러나, 5회에 대거 5점을 헌납하며 역전을 허용했다.

1사 3루에서 문성주에게 1타점 적시타를 허용한 데 이어, 계속된 만루위기에서 연속 2루타를 맞고 4점을 더 실점해 5-7로 끌려갔다.

하지만 KIA가 역전하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KIA는 7회를 빅이닝으로 만들며 분위기를 다시 가져왔다.

김선빈의 안타와 나성범의 불넷으로 만든 1사 1.2루에서 김도영의 희생 번트때 상대 포수 3루 송구 실책으로



KIA 최형우가 28일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LG와의 경기에서 1회초 선제 스리런 홈런을 터뜨린 후 베이스를 돌고 있다. /연합뉴스

대주자 김호령이 홈을 밟으며 한점을 만회했다.

이어 최형우의 땅볼 타점, 이우성의 1타점 적시타를 보태 8-7로 재역전에 성공했다.

KIA는 8회에도 1사 이후 김선빈, 김호령의 연속안타로 9-7까지 달아났다.

9회엔 소크라테스의 안타와 상대 실책을 묶어 한점을 더 추가해 승리에 쐬기를 박았다.

결국 KIA는 9회 마무리 정해영이 세 타자를 모두 범타로 처리, 10-7 팀 승리를 지켜내며 끈질긴 승부에 마침표를 찍었다. /주흥철 기자



광주매일신문 창조클럽아카데미 총동창회장배 골프 성료

광주매일신문 창조클럽아카데미 총동창회(회장 이정배) 회장배 골프대회가 지난 25일 오후 회원 등 80명이 참가한 가운데 담양테이내CC에서 열렸다. (사진)

광주매일신문 창조클럽아카데미 총동창회 주최로 열린 이날 대회는 창조클럽 아카데미 1기부터 11기까지의 회원이 주축이 돼 신페리오 방식의 경기 및 푸짐한 경품행사로 진행됐다.

경기 결과 다비디상은 이정배(3개), 윤서영(2개) 회원이 각각 남녀 수상자로 선정된 것을 비롯, 니어리스트는 류원창·김해숙 회원, 톱기스트는 황인섭·정숙자 회원이 선정돼 부상으로 상품권을 받았다.

또 메달리스트는 7타를 기록한 박창순 회원과 8타를 친 안정임 회원, 신페리오 방식 우승은 양성운·김영신 회원이 각각 남녀 주인공으로 선정돼 부상으로 캐디백과 보스톤백 및 우승트로피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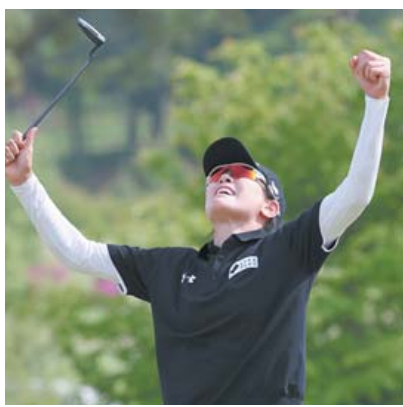
이어 열린 경품행사에는 추첨을 통

해 여행용 캐리어와 제주왕복 항공권, 도자기 반상세트, 정육세트, 여행용 캐리어, 종합비타민세트, 그린골프상품권, 김복녀 약과세트 등이 지급됐으며, 참가자 모두에게 김세트가 기념품으로 제공됐다.

이정배 총동창회장은 "창조클럽아카데미 총동창회는 화합과 봉사를 모토로 회원들간 친선을 도모하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작은 보탬이 되는 봉사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며 "오늘 골프대회를 통해 친선을 도모하고 어린이날에는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을 초청해 함께하는 행사를 하겠다"고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이경수 광주매일신문 대표는 "친선도모를 통해 회원들의 유대를 강화하고 봉사와 참여를 실천하는 창조클럽 동창회원들이 회사에도 큰 힘이 되고 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광주매일신문 창조클럽아카데미 총동창회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다음달 11일 광산구 신상록 어린이 집에서 다문화가정 어린이와 학부모 등 100여명을 초청해 어린이날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희중 기자



이정민이 28일 열린 '크리스토프앤씨 제46회 KLPGA 챔피언십' 최종라운드에서 우승 확정 후 환호하고 있다. (KLPGT 제공)

이정민, 메이저 첫승 KLPGA 챔피언십 우승

이정민이 시즌 첫 메이저 대회 왕좌에 등극했다.

이정민은 28일 열린 KLPGA 투어 크리스토프앤씨 제46회 KLPGA 챔피언십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버디 7개와 보기 1개로 6언더파 68타를 쳤다.

최종 합계 23언더파 265타를 기록한 이정민은 19언더파 269타의 전예성을 4타 차로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다.

우승 상금 2억3천400만원을 받은 이정민은 투어 통산 11승을 거뒀고, 메이저 대회에서는 처음 우승했다.

이정민이 이날 작성한 23언더파 265타는 KLPGA 투어 72홀 최소타 타이 기록이다.

2위에 오른 전예성은 이날 버디 12개로 12언더파의 성적으로 KLPGA 투어 18홀 최소타 타이 기록, 18홀 최다 버디 신기록을 달성했다. /연합뉴스

"내년 '맛·멋·흥'이 넘치는 전남에서 다시 만납시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이 28일 울산혁신포럼에서 열린 2024 전국생활체육대축전 폐회식에서 김철욱 울산시체육회장으로부터 대회 패너트기를 전달받은 후 기념촬영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철욱 회장, 윤성욱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송진호 회장 <전남도체육회 제공>

울산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광주·전남선수단 '우정 한마당'

전국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축제인 '2024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이 나흘간의 일정을 끝으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울산시 일원에서 41개 종목의 경기가 펼쳐진 이번 대축전에 광주는 29개 종목 570명, 전남은 33개 종목 928명의 동호인들이 참가해 우정과 화합의 한마당을 펼쳤다.

광주선수단은 차현제가 태권도 여자U-15 L벨터급에서, 성은미가 스쿼시 여자일반부 개인전에서, 김승주·조

은아 조가 스쿼시 일반부 혼합복식에서, 이시훈이 합기도 U-12 호신술 경기에서 각각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어 태권도, 줄넘기, 수영 등에서 은메달 8개와 동메달 15개를 수확했다.

전남은 배구 남자일반부 금메달, 여자일반부에서 동메달을 획득하면서 종목 종합우승을 차지한 것을 비롯해 육상에서 금메달 6개 등 14개의 메달 획득, 그라운드골프(75세 이상, 74세 이하)에서 금메달 2개, 당구(75세 이상)에서 금메달 등 총 16개 종목에서

금 14, 은 12, 동 13개를 획득하며 대회를 마무리했다.

전남선수단은 28일 울산혁신포럼에서 열린 폐막식에서 전남도와 전남도체육회가 각각 대회기와 패너트기를 전달 받으며, 내년 차기 개최지로서의 준비에 들어간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은 "전국생활체육대축전에서 전남 선수단이 그동안 갖고 닦은 기량을 맘껏 발휘해 좋은 결실을 거둬 기쁘다"며 "전남도도와 함께 전국생활체육동호인들이 전남의 맛과 멋을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차기 개최지로서 최선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박희중 기자



2024 전국실업유도연맹전에서 금 1개와 은 1개를 획득한 광주교통공사 유도팀. 왼쪽부터 신대철 감독, 황수련, 이주연, 김성연 코치. <광주교통공사 유도팀 제공>

광주교통공사 유도 황수련 전국실업유도연맹전 '金'

이주연 -63kg 은메달 획득

광주교통공사 유도팀 황수련이 2024 전국실업유도연맹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황수련은 지난 27일 강원 양구문화체육관에서 열린 여자부 -52kg급 결승에서 오연주(성동구청)를 안다리결기 절반으로 이기고 우승을 차지했다. 황수련은 16강전에서 양서우(순천

시청)에게 안다리결기 절반승, 8강전에서 장가는(경남도청)에게 기권승을 거둔 뒤 준결승서 구소정(충북도청)을 상대로 팔가로우위결기 한판승으로 결승에 진출했다.

이주연은 여자부 -63kg급 은메달을 획득했다. 이밖에 광주시체육회 박선주는 남자부 -60kg에서 동메달을, 이윤상은 남자부 -81kg에서 동메달을 각각 획득했다. /박희중 기자

극장골 '악몽'...광주FC, 6연패 수렁

수원FC戰 1대2 역전패

광주FC가 총격의 6연패에 빠졌다. 광주는 지난 27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K리그1 9라운드 수원FC와의 경기에서 통탄의 극장골을 내주며 1대2로 역전패했다.

지난달 17일 포항전(0대1), 31일 대구전(1대2), 3월 인천전(2대3), 6일 김천전(1대2), 13일 전북전(1대2)에 이어 또다시 1점차 패배를 당하며 리그 최하위권으로 추락했다.

전반 15분, 광주가 결정적 기회를 맞았다. 박태준의 대각선 롭패스를 이어 받은 김한길의 수비를 앞에 두고 대포알 슈트를 날린 것.

김한길의 슈트는 골키퍼가 손 쓸 수 없는 오른쪽 상단 구석으로 향했지만 골대를 맞고 나왔다.

공세를 이어가던 광주가 선제골을 터뜨렸다.

전반 43분, 두현식의 롭볼 침투 패스를 이어받은 문민서가 수비 한 명을 가볍게 제치고 반대편 골문을 향해 공을 집어 넣었다. 하지만, 광주의 우위는

오래 가지 못했다. 전반 추가 시간 1분, 페널티 박스 안에서 공을 잡은 정승원이 발길 돌며, 절묘하게 감아 찬 공이 왼쪽 골문 구석으로 빨려 들어갔다.

광주는 후반 53분의 교체카드를 활용하며 승부수를 띄웠다. 하지만, 지지부진하던 공격은 결실을 맺지 못하고, 오히려 수원의 역습 한 방에 무너졌다. 후반 추가 시간 6분이 다 지나갈 무렵, 문전 혼전 상황에서 이승우가 내준 공을 김태환이 마무리하며 통탄의 역전골을 내줬다. /박희중 기자

김민재, 통산 9번째 장사 등극

문경장사씨름 백두장사

김민재(영암군민속씨름단)가 문경장사씨름대회에서 통산 9번째 황소트로피를 들어올렸다.

김민재는 지난 28일 경북 문경시 문경체육관에서 열린 위더스계약 2024 민속씨름 문경장사씨름대회 백두장사(140kg 이하) 결정전(5판 3승제)에서 임진원(의성군청)을 3-0으로 완파하고 통산 9번째 장사에 등극했다.

김민재는 이날까지 총 8차례 백두장사를 차지했고, 천하장사도 한 차례 올랐다.

16강전에서 김병호(울주군청)를 2-0으로, 8강전에서 윤희준(문경시청)



을 2-0으로 꺾은 김민재는 준결승전에서 송명호(의성군청)를 2-1로 제압하고 장사결정전에 올랐다.

김민재는 첫판 들배지기로 기선을 제압했다. 두 번째 판에서 왼배지기에 성공한 김민재는 세 번째 판에서 다시 들배지기로 임진원을 꺾고 백두장사에 올랐다. /연합뉴스